ICT 0321

발표 <사물인터넷>

김영인 – 삼성 SmartThings

스마트홈 분야.

IoT -> 농업, 휘트니스, 스마트 홈 등등

스마트홈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판매한다. -> smartThings hub가 주 아이템

스마트띵스 앱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.

역사는 2012년도부터 시작 알렉스 호킨슨(CEO), 크라우드 펀딩(킥스타터) 120만달러 모으면서 첫 제품 출시.

듀블린 웹 서밋에서 우승하며 10만 유로의 상금을 받기도 함.

2013년도에 자사 홈페이지에서 하드웨어 판매하기도 함.

9월에는 아마존에서도 판매 시작

여러 벤처캐피털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1250만달러 지원

2014년 CES 가전제품 전시회, 스마트띵스 랩 -> 지원되지 않는 품목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함. 8월에는 다이렉트 에너지와 파트너십 형성

8월에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되는 조건으로 삼성에 인수

평가 – 스타트업의 가장 큰 난관인 자본 문제를 해결, 대기업과의 성공적인 인수&합병

허브 외에 다른 센서들을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.

보안에 관한 문제 -> 해킹당할 가능성

이동민 – jasper, clover

jasper – 2004년에 세워진 플랫폼 스타트업.(사물인터넷 플랫폼)

IoTaaS = Internet of Things as a Service

- 서비스로서의 사물인터넷.

박성훈 – proteus, With thigs (건강과 관련된 기업)

Health –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, 의사의 원격 진료

기술 – 먹을 수 있는 센서와 몸에 붙이는 패치등을 통해 어떤 약을 언제 섭취했는지 알 수 있다.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 의사가 사용가능하다.

질문 :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원격 진료나 정보 이용 등이 어려운데 어떻게? –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가? 한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가 보려고 할 때.

안전성이 검증되었다. 그러나 아직 가격이 미정이다. Cost is not informed!

가격대는 회사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.

With things

Withthings는 2016에 노키아에 인수되었다.

손목시계 – 활동량을 추적하고, 수면패턴을 기록하고, 활동량을 기록해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 가능.

2008년에 설립되었다. 2010년에 380만달러 펀딩을 받았다.

Critique

Good Application of IoT in health and also Good Design

M&A

– Design was improved.

- it could not grow into big company but just provide nokia with its technology

WELT(지인이 창업한 회사)

스마트 벨트(건강정보)

굳이 핸드폰으로도 측정가능한 정보들

다른 충전해야 할 기기들도 많은데 벨트까지 충전을 해야 하나 영구적으로 태양열 등을 통해 할 필요가 있다 -> 의미가 있나

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군이나 디자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용이 거의 어려움 -> 회사원들을 대상

안전성 검증도 해야 한다.

벨트는 패션아이템 (애플워치 와 롤렉스) -> 인수& 합병

C-Lab 삼성에서 지원하는 창업시스템

삼성에서 Seed-Money 제공